

# 전라북도 학생인권심의위원회

## 결 정

사 건 명 15-학인-00022 체벌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신 청 인 ○○○(피해자의 父)  
피 해 자 ◇◇◇(피해 당시 ▣▣▣초등학교 3학년 ○반 학생)  
피 신 청 인 ●●(▣▣▣초등학교 교사)

## 주 문

전라북도교육감에게,

- 가. 피신청인은 피해자와 위 학교 3학년 ○반 학생들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및 인격권을 침해하였으므로, 피신청인에 대한 신분상 처분을 할 것을 권고한다.
- 나. 피신청인의 행위와 유사한 사례가 다른 학교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여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 이 유

## 1. 구제신청의 개요

가. 접수일자 : 2015. 5. 8.(금)

나. 신청인 : ○○○(피해자의 父)

다. 피해자 : ◇◇◇(피해당시 ▣▣▣초등학교 3학년 ○반 학생)

라. 피신청인 : ●●(당시 ▣▣▣초등학교 3학년 ○반 담임교사)

마. 구제신청요지

2015. 4. 21.(화) 피신청인은, 피해자가 음악시간에 떠들었다는 이유로 빗자루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때렸고, 2015. 3. 말경에는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의 머리가 부었다.

## 2. 관련 규정

별지와 같다.

## 3.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가. 신청인 및 피해자의 주장

위 구제신청요지와 같다.

나. 피신청인의 주장

1) 정확한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2015. 3.경 꿀밤을 주는 것처럼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것 같다.

2) 2015. 4. 21. 1교시 시작 전에 피해자와 △△△ 학생이 뛰어다녀 주의를 주었는데, 2교시 쉬는 시간에 위 학생들이 같은 행동을 하여, 플라스틱 빗자루를 사용하여 위 학생들을 각 1대씩 때렸다.

## 4. 인정사실 및 판단

### 가. 인정사실

신청인, 피신청인의 주장 및 관련 자료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2015. 3.경 피신청인은 꿀밤을 주는 것처럼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

2) 2015. 4. 21. 2교시 쉬는 시간에 피신청인은, 피해자와 △△△ 학생이 교실에서 2회 뛰어다녔다는 이유로, 위 학생들의 허벅지를 교실에 있던 빗자루를 사용하여 때렸고, 피해자는 위와 같은 피신청인의 행위로 인하여, 오른쪽 허벅지에 멍이 들었다.

3) 2015. 4. 29. 위 학교는 위 인정사실 2)항의 피신청인의 행위와 관련하여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개최하고,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및 관련 조치를 하도록 결정하였으며, 해당 결정에 따라 학생들의 집단 심리 상담, 설문조사, 피해자 심리상담, 교직원 대상 인권교육 실시 등의 후속조치를 하였다.

## 나. 판단

관련 규정에 따르면, 학생이 학칙을 위반하는 등 교사의 지도가 필요한 행동을 한 때에는, 학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지도하여야 하고, 교사가 훈육 및 훈계 등의 방법을 선택할 때에는,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교육적 효과가 높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을 체벌하는 것은 학생의 신체에 직접적인 고통을 가한 것으로서, 해당 학생의 신체의 자유 및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위와 같은 체벌행위로 인하여 해당 학생은 모욕감 또는 수치심 등을 느끼게 될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예측 가능하므로, 체벌행위는 해당 학생의 인격권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위 인정사실 1), 2)항의 행위에 대하여 검토하면, 피신청인은 학생의 신체에 손과 도구를 사용하여 체벌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및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신청인은 2015. 3. 경 및 같은 해 4. 21. 피해자에게 손과 도구를 사용하여 체벌하였고, 체벌의 경위 및 반복성 등을 고려하면, 피신청인에 대한 신분상 처분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된다.

위 인정사실 2)항의 피신청인의 행위와 관련하여, 2015. 4. 29. ☐ ☐ ☐초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피해학생 보

호조치 등(해당학급 학생들의 집단 심리상담, 학생대상 설문조사 실시, 피해학생 심리상담, 교직원 대상 인성·인권교육실시)이 이루어졌으므로, 학교에 별도의 추가적인 조치를 권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라북도교육청 차원에서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것을 권고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5. 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49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 7. 30.

전라북도 학생인권심의위원회 위원장 송기춘 (서명)

## [별지] 관련 규정

### 가.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2조(신체의 자유)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 나. 「교육기본법」

제12조(학습자) ①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 다.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 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⑧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하지는 아니 된다.

## 마.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3조(학생의 인권 보장 원칙) ① 학생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의 인권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으로만 제한될 수 있으며, 이 조례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 한다.

③ 학생의 개성과 자율성은 학교생활에서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

제9조(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① 학생은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교육과정에서 차별은 금지된다.

제49조(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과 조치) ① 학생이 인권을 침해당하였거나 침해당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인권옹호관에게 그에 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구제신청을 받은 인권옹호관은 사건에 대하여 조사한 후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학교와 교직원에게 대한 시정권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생략

④ 인권옹호관이 제2항의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교육감에게 통보하고, 그 요지를 공표하여야 한다.

⑤ 인권옹호관으로부터 시정 권고를 받은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학교와 교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권고사항을 이행하여야 하고, 조치 결과를 즉시 인권옹호관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인권옹호관의 권고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